

전주 도서관 여행 확대 운영

시, 주제별·테마별 프로그램·신규 특화도서관 코스 등 추가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여행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코스로 확대된다.

시는 기존 단일 프로그램에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을 선택형으로 제공하고 내년에 문을 여는 특화도서관을 여행 코스에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전주 도서관 여행'을 다채롭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주시청 책가도도서관 △팔복예술공간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 등 5곳의 특성화도서관을 하루 동안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총 20회에 걸쳐 운영된 이 프로그램에는 194명의 여행객이 다녀갔다. 또 타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된 프로그램에도 406명이 참여하는 등 관심이 높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전주 도서관 여행'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콘텐츠를 보다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는 여행자들의 취향을 담은 '주제가 있는 도서관 여행'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1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책+음 여행 △책+문화 여행 △책+예술 여행 △책+자연놀이 여행 등의 코스가 이 선택형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여행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코스로 확대된다.

여기에 시는 △여행 분야 전문가(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강연 및 여행 프로그램 △세대별 여행 프로그램 △전주시 주관 축제와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 △전주의 출판과 기록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등 테마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탈바꿈될 예정인 금암·인후·송천도서관을 비롯해 옛 다가치안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는 다가 여행자도서관 등의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도서관 여행 코스에 추가해 장소적 다양성도 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조직개발을 통해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신설한 시는 시민들이 힘들고 지친 삶속에서 여행하듯 도서관을 방문해 휴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담은 이색적인 특화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주력해왔다. 책가도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에는 올해 2만9000여 명의 이용자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라기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장은 "전주만의 책 문화와 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도서관과 책이 시민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책을 통해 시민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전주만의 차별화된 도서관 여행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5일 ▲삶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 ▲책이 읽히고 쓰이고 출판하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 ▲가보고 싶은 책여행 도시 ▲전주가 기억하는 동문 책의 거리 등 5개 중점방향을 골자로 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탄소 없는 전주여행'

전주시, 지속가능 여행학교 졸업생 15명과 줄김·비건식사·공유 텀블러 사용 등 체험

줄김(줄다+조김)을 하고 비건(vegan) 식사를 한 뒤 테이크아웃으로 차를 마시고 빈 텀블러를 다른 카페에 반납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활동이 하루 동안 펼쳐졌다.

전주시는 18일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일원에서 지속가능 여행학교(2020~2021) 졸업생 15명과 함께 하루 동안 탄소중립 활동을 체험하는 '탄소 없는 전주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속가능 여행학교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여행 프로그램은 최근 줄김, 비건식 등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공감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참여자들은 한옥마을 인근 천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줄김'으로 시작해 고물자 골목 공유공간 등근숲을 찾아 로컬푸드와 탄소발자



국 줄이기 교육을 들었다.

점심 식사시간에는 겨울채소 손질·조리방법을 배운 뒤 친환경 일회용기에 직접 가져온 개인 수저로 비건식을 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또 전라감영 일원 카페에서 공유 텀블러에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마시고

객사길에 있는 다른 카페에 텀블러를 반납하는 '텀블러' 사업도 경험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폐자원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센터 다시봄을 견학하고 재활용 정책 소

개를 들으며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Zero Waste)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뤄진 모든 이동방법의 경우 자동차가 아닌 도보로 추진됐다.

시는 19일에도 다른 지속가능 여행학교 15명을 대상으로 '탄소 없는 전주여행'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졸업생은 "이번 여행을 통해 전주 곳곳을 돌아보면서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다"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광가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전주가 탄소 중립적 관광도시로서 알려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국회 방문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 예산심사 핵심인사 만나 사업 설명·국비 지원 요청

국회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그린뉴딜 정원직산산업센터 구축과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등 전주 발전을 이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들과 기재부 예산실 간부 등 국회·정부 예산심사 관련 핵심인사들에게 전주시 중점 추진사업 5건의 예산 반영에 힘을 보태줄 것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정운천 국민의힘(비례)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총복 청주시)을 만나 전주시 중점 추진사업 5건의 예산 반영에 힘을 보태줄 것을 피력했다.

또한 김 시장은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증액요청 예산이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증액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문체위 소관 예산을 담당하는 강완구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에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한병도 민주당(전북 익산시) 의원과 정대영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에게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주시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전주시가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그린뉴딜 정원



김승수 시장은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만나 전주시 중점 추진사업 5건의 예산 반영에 힘을 보태줄 것을 피력했다.

직산산업센터 구축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허브 구축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등이다.

향후 시는 각 상임위 증액 의결액의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대응과 미반영 사업들에 대한 증액 건의활동을 이어나가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10일 등에도 연이어 국회를 찾아 전주시 주요 사업 소관 상임위원들과 예결위 의원 등을 상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건의한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 '전주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전주 객사길을 사람 중심의 거리로 만드는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고사동 육도주차장 인근 전주객사길 1·2·3길 1.7km 구간을 테마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조선시대 전주부성 흔적길 △객리단 감성길 △객리단 보행길 등 3가지 테마별 특화거리로 조성되는 것으로, 내년 10월까지 단계적

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객사길 육도주차장부터 충경로 구간의 조선시대 전주부성 흔적길부터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부성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풍남문 성벽 패턴의 석재로 포장되며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안내 표지물도 설치된다.

조선시대 전주부성 흔적길에 이어 감성길과 보행길 등 나머지 특화거리 는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플라마켓 행사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예술가 10인의 예술작품을 설치해 포토존을 만드는 등 한옥마을 관광객의 외연을 객사길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부성 성곽길이 조성되면 보행자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변모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며 "성곽길 조성 과정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